

다시 부는 경서

달마 혈맥론(血脉論) ⑩

道本圓成 不用修證 道非聲色
 道本圓成 불용수증 도비성색
 微妙難見 如人飲水 冷暖自知
 微妙難見 如人飲水 冷暖自知
 미묘난견 여인음수 냉난자지
 不可向人說也 唯有如來能知
 不可向人說也 唯有如來能知
 불가향인설야 유유여래능지
 餘人天等類 都不覺知 凡夫智不及
 餘人天等類 都不覺知 凡夫智不及
 여인천등류 도불각지 범부지불능
 所以有執相 不了自心 本來空寂
 所以有執相 不了自心 本來空寂
 소이유집상 불료자심 본래공적
 妄執相及一切法 即墮外道
 妄執相及一切法 即墮外道
 망집상급일체법 즉타외도
 若知諸法 從心生 不應有執
 若知諸法 從心生 不應有執
 약지제법 중상생 불용유집
 執即不知 若見本性 十二部經
 執即不知 若見本性 十二部經
 집즉부지 약견본성 십이부경
 總是閑文字 千經萬論 只是明心
 總是閑文字 千經萬論 只是明心
 총시한문자 천경만론 지시명심
 言下契會 教海何用
 言下契會 教海何用
 언하계회 교정하용

盡是托生之處 切須在意 臨終之時
 盡是托生之處 切須在意 臨終之時
 진시탁생지처 절수재의 임종지시
 不得取相 即得除疑 心驚即覺
 不得取相 即得除疑 心驚即覺
 부득취상 즉득제 의심거즉마섭
 法身本來清淨無受 只緣迷故
 法身本來清淨無受 只緣迷故
 법신본래정정무수 지연미고
 不覺不知 因茲故 妄受報
 不覺不知 因茲故 妄受報
 불각부지 인자고 망수보
 所以有樂著 不得自在
 所以有樂著 不得自在
 소이유락착 부득자재

지역한 진리는 말을 떠났는데 교법은 말씀이니 진실로 도가 아니다. 도는 본래 말이 없고, 말이란 허망할 뿐이다. 만약 꿈에 누각이나 궁전, 상마(象馬)의 무리나 나무·술·못·정자들의 모습을 보거든 한 생각이라도 즐겨 집착하지 말라. 이것이 다 중생으로 의탁할 것이 되니 부디 주의하여라. 임종할 때에 형상을 취하지 않으면 즉시 의혹을 떨어버리지만 잠시라도 망상을 일으키면 마귀에 밀려든다. 법신은 본래 청정하여 느낌이 없지만 다만 미혹된 까닭에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다. 이런 까닭으로 망령되어 일보를 받고, 이 때문에 즐기고 집착하여

도(道)는 본래 원만히 이루어진 것이니 다투거나 증득할 것이 없으며, 도는 소리나 빛이 아니라서 미묘하여 보기가 어렵다.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시면 차고 더운 것을 스스로는 알되

많은 경론 오직 마음 밝혔을 뿐이니

깨닫는다면 교법이 무슨 소용인가

남에게 말할 수가 없는 것과 같다. 오직 여래만이 알 수 있고 그 밖의 사람이나 하늘 등의 무리들은 도무지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다. 범부는 지혜가 미치지 못하므로 겉모습에 집착하여 자기 마음이 본래 비고 고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망령되어 겉모양과 온갖 법에 집착하여 곧 의도에 떨어진다. 만약 모든 법이 마음에서 생긴 것임을 알면 집착이 있을 수 없다. 집착하면 알지 못한다. 민일 본성을 알게 되면 심이부경이 모두 부질없는 문자이다. 많은 경론이 오직 마음을 밝혔을 뿐이니 언하(言下)에 깨닫는다면 교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只今若悟得 本來身心 即不染習
 只今若悟得 本來身心 即不染習
 지금약득 본래심신 즉불염습
 若從聖人示 現種種雜類等
 若從聖人示 現種種雜類等
 약종성인시 현종종잡류등
 自爲衆生故 聖人逆順
 自爲衆生故 聖人逆順
 자위중생고 성인역순
 皆得自在 一切業 拘他不得
 皆得自在 一切業 拘他不得
 깨득자재 일체업 구타부득
 聖成久 有大威德 一切品類業
 聖成久 有大威德 一切品類業
 성성구 유대위덕 일체품류업
 被他聖人轉 天堂地獄 無奈何他
 被他聖人轉 天堂地獄 無奈何他
 피타성인전 천당지옥 무나하타

至理絕言 教是語詞 實不是道
 至理絕言 教是語詞 實不是道
 지리절언 교시어사 실부시도
 道本無言 言說是妄 若夜夢
 道本無言 言說是妄 若夜夢
 도본무언 언설시망 약야몽
 兒樓閣 宮殿 象馬之屬
 兒樓閣 宮殿 象馬之屬
 견루각 궁전 상마지속
 及樹木鐵池等
 及樹木鐵池等
 급수목총림지정
 如是等相 不得起一念著
 如是等相 不得起一念著
 여시등상 부득기일념착

지금이라도 본래의 몸과 마음을 깨닫기만 하면 곧 습성에 물들지 않으리라. 성인이 범부의 경계에 들어가 갖가지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본래 중생을 위해서이다. 성인은 역순(逆順)에 자재로워서 온갖 업이 그를 구속하지 못한다. 성인의 지위가 오래 되면 큰 위덕이 있어서 온갖 종류가 성인의 지휘를 받아 움직이므로 천당과 지옥도 성인을 어찌하지 못하게 된다.
 . 김원각(시인·역경위원)

헌 큰 스님과의 대화

인환스님

동국대 명예교수

지도를 하시는 인환 큰스님을 찾아, 초심자들을 위한 선 수행의 실제에 대해 여쭙어 보았다.

*오른발을 왼쪽 넓적다리 위로 올린 다음 아랫배까지 바짝 당겨 붙이고, 같은 방법으로 왼발을... 다음은 오른손 등을 왼손 바닥에 포개 올리고 두 엄지손가락을 가볍게 맞댄 다음 아랫배에 붙이세요. 자, 이렇게 자세를 갖추었으면 앞으로 몸을 가볍게 흔들어서 주시고, 이어서 왼쪽 오른쪽으로 몸을 흔들어서 중심을 잡으세요. 그리고 눈을 어슴프레 반쯤 감으시고...
 이어서 '딱, 딱, 딱' 세 번의 죽비 소리, 그리고 긴 침묵.
 동국대학교 대각전 법당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두 시엔 어김없이 이런 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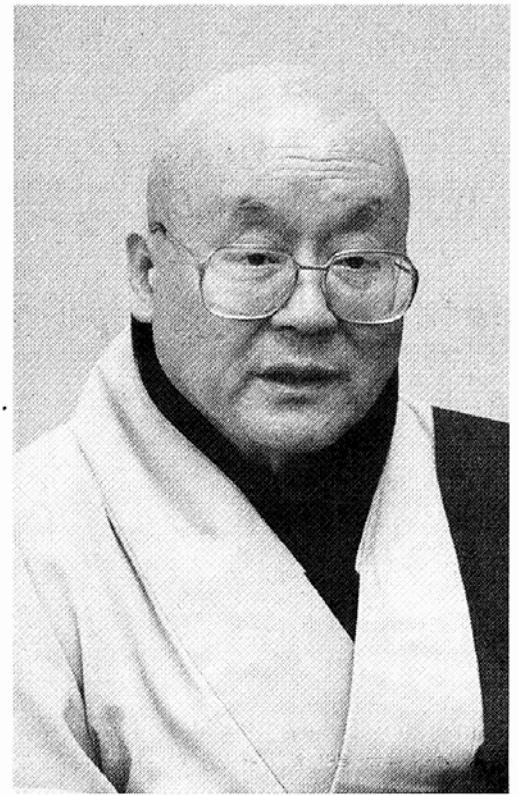
“참선, 업장소멸의 지름길”

— 백발이 성성한 노인에서부터 이십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나이와 계층의 사람들이, 진지한 자세로 강의를 듣고 또 실제 수행을 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어떤 계기로 이 강좌를 이끌게 되셨는지요?
 ▲ 동국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부터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교양 과목의 하나로 개설된 '참선 실수'를 여러 해 가르쳤습니다. 1996년에 청년 퇴직자 다음에는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의 '선의 이론과 실제'라는 강좌를 맡아서 지금까지 5년 동안 가르치고 있어요.

— 강좌의 특성으로 볼 때 실제 수행이 중심이겠습니까, 수강생의 수준에 따른 교육 과정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각각 40명을 정원으로 6개월씩 진행합니다. 먼저 초급반은 전혀 참선을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손 잡아, 발 잡아' 하면서 선의 기초를 체계있게 가르칩니다. '호흡 다스리는 법, 몸 다스리는 법, 마음 다스리는 법'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익혀나가는 것이 교육의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수식관을 가르칩니다. 수식관은 선의 기본이거든요. 이렇게 6개월의 초급 과정을 마치면 화두를 주는데 주로 '이피고'를 들게 하죠.

그러나 이론을 완전히 도외시하지는 않습니다. 몸소 수행하는 것이 이 강좌의 특징이고 그것이 선의 본질이긴 합니다만, 알것은 제대로 알아야 실천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동쪽으로 가야 하는데 서쪽으로 가서는 안되잖아요. 그래서 옛 조사들이 일러 주신 말씀을 알기 쉽게 전해주곤 합니다.

— 최근 들어 선에 대한 관심은 가히 폭발적입니다. 심지어는 '21세기 인류 문명의 대안'으로 일컫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참선 수행을 하는 사람이 그만큼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까닭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지요. 또한 이 문제는 막연히 참선 수행을 동경하기만 하는 초심자들의 심리적 태도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 1931년 원산 생
- 52년 부산 선암사 선원으로 출가
- 56년 해인사 금강계단에서 구족계
- 64년 동국대 불교학과 졸업
- 71년 일본 고마자와대 대학원 박사과정(선학 전공)
- 74년 일본 도쿄대 대학원 박사과정(인도 철학)
- 75년 일본 도쿄대 대학원 문학박사(불교 사상사 전공)
- 72~76년 조계종 재일 총무원 부원장
- 76~81년 토론토 대학사 청진
- 82년 동국대 정각원장
- 82~96년 동국대학교 교수
- 현재 서울 경국사에 주석

— 초심자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용기배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수행을 하려 들면, '어떻게'라는 방법상의 벽에 부딪쳐 앞으로 나아가길 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초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선 수행의 실제에 대하여 여쭙어 보겠습니다. 초보자들이 가장 유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요.

▲ 먼저 호흡을 제대로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호흡이 제대로 돼야 몸을 다스릴 수 있고 정신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전 호흡이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는 단전 호흡과 선 수행에 있어서의 단전 호흡은 달라요. 일반적인 단전 호흡은 호흡을 위한 호흡이지만, 선에서의 호흡은 화두를 제대로 끌고가기 위한 기호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생활 패턴에 맞추어서 아침 저녁으로 10~20분이라도 꾸준히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6개월 좀 하면 저절로 몸과 호흡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수식관을 통해 호흡을 제대로 다스릴 줄 알아야. 나중에 화두를 들 때에도 화두에 전념할 수 있고 몸에 무리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를 무시하면 수행에 진척도 없고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이런 걸 모르고 남들이 화두를 든다고 하니깐 나도 해야지 하는 식이면 머리론만 화두를 들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호흡과 몸이 어긋나고, 자세는 흐트러지고, 상기가 되어 병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선지식을 잘 만나야 합니다. 앞은 지식이나 책을 보면서 혼자 하다가는 실패하기가 십상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초심자는 혼자 공부해서는 안됩니다. 대중들과 함께 공부함으로써 학인 자신을 돌아보며 반발하기도 하고 해탈심도 막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기에서는 예로부터 '남이 내 공부 반을 해 준다'는 말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 간단히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수식관을 통해 기초를 튼튼히 하라. 선지식의 도움을 받아라. 혼자 공부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 그렇습니다. 선지식의 바른 가르침

터 '생사 해탈'만을 강조하면 지만치도 망가게 돼요. 그래서 보조 스님도 (초발심자경문)에서 이르시기를, 법문을 듣는 데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 부류는 '높고 높은 저 경지에는 도저히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법문이라고 들어 봐야 밤낮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더 들을 것이 있나'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는 사람들이예요. 이런 두 종류의 생각 모두 법문을 진지하게 듣는 것을 방해한다고 했어요.
 그렇듯이 선 수행에 있어서도 '선은 보살이나 스님이나 선지식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 같은 사람이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왕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왕토흙집에 희소식!!

왕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왕토마을에서는

● 왕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왕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 高養山 야생참 인진속 엑기스

고양산 야생참 인진속 엑기스는?

자연만을 고집하는 구상복지원 임행스님이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일대의 깊은 산속에서 자라는 야생 참인진속(蔞陳蒿)을 여러 차례 탐사와 함께 직접 채취하여 고양산 자락에서 5년이상 자란 쑥, 당귀, 자연산 북문자산달기등 8종의 약초를 가미해서 강원남부생약농협 식품사업부에서 현대식시설을 이용 위생적으로 추출 가공한 건강식품이므로 승려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중에 유통된 인진속과는 다릅니다.

공급가격 - 2개월분 ₩175,000
 우체국 010108-0179782 강종무
 은행신용카드 18개월 분할 가능

배에 관절이나, 골다공증, 관절염에 특효라는 홍화씨를 스님들이 직접 유행과 불제를 뿌리고 재배한 토종홍화씨만을 필요하신 분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순수익금은 (전액) 복지사업에 쓰여집니다.

혜질에 관계없이 남자, 여자, 노인분들, 임산부, 노약자, 입원환자 등 모두에게 좋습니다.

1. 변비에 좋습니다.
2. 피를 맑게 해 줍니다.
3. 당뇨병
4. 신경통
5. 생리불순이나 냉대하
6. 간이나쁜사람
7. 위장병에도 효과적입니다.
8. 고혈압, 저혈압
9. 피로회복에도 아주 좋습니다.
10. 정력 회복에도 아주 좋습니다.
11. 불면증, 황달
12. 산모에게도 탁월한 효과

주문 전화 080-988-4774
 소비자상담실 0398-563-4778
 인터넷 http://www.yasenginjinsook.co.kr

경북 청송의 관음기도 영험도량 샘재 영천암(靈泉庵)에서 불자님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귀의심부하옵고, 소삼은 지난 1998년 전기누전으로 인하여 법당이 전소된후 새로이 조립식으로 임시법당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필설로 다할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으며 지금 현재도 부처님 재래를 비롯 후불명화와 좌우보처 보살님도 모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불자님께서 오신 사찰초과일 부처님 오신날에 안락하게 생각하시고 하루속히 영천암을 정상화시울수 있도록 들을 돌이라도 밝혀 주시옵디라. 그러나 도움이 되셨으니 부디 도와 주시옵기를 기원합니다. 자성으로 드러서 모신 우리 영천암 부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복과 덕이 부족해서 늘 여러 불자님께 염려를 많이 끼쳐 드려서 참으로 송구하오나 앞으로 반드시 사회사업을 해서 불사회향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공숙에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제가 이 불사를 성취하여 저 수미산 같은 한을 풀 수 있도록 하루속히 백과좌법회를 꼭 꼭 꼭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애절하고 간절한 소원을 성취하지 못하면 제가 살아있어도 어떻게 살아 있다고 하겠사오며 불사를 성취한다면 저는 복에도 신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사오며 저 사해바다 같은 한을 풀도록 부디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옵니다. 그리고 또 영천암에 도사실을 만들고저 하오니 불자님 가정에 다 위수신 불사와 법문 카세트 테이프, 법문 비디오 테이프 불교관련CD가 있으신 분께서는 영천암으로 기증을 해 주시옵디라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사오니 저 혼자 힘으로 도사실을 열기가 어려우니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 등불을 밝히는 분께는 일년내내 기도 축원해 드립니다.
 ● 탁발 다니는 분께로 평일 내사시(未寺時)미리 전화 연락 바랍니다.
 ● 등불공양 물리실분은 가족상황과 전화번호를 팩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북 청송군 진보면 시랑리 548-3번지
 샘재 영천암(靈泉庵)
 전화문의(팩스겸용) : (0575)873-2724 휴대문 : (016)521-2724
 주지 광승만 합장
 ▶ 온라인입금 계좌번호 농협 : 711089-51-056599
 ▶ 예금주 : 광명회 우체국 : 700419-0136013

영천암 오시는 길안내도